

# 韓·中 親族 呼稱 ‘兄’과 ‘哥’에 관한 通時的 比較

유현아\*

---

##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중국어 친족 호칭 ‘兄’이 ‘哥’로 교체된 원인 및 시기 고찰
    - 1. ‘兄’에 대한 고찰
    - 2. ‘哥’에 대한 고찰
  - III. 한국어의 친족 호칭 ‘兄’
    - 1. 고유어의 존재 여부 및 교체 시기 고찰
    - 2. 중국어 ‘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인 試探
  - I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친족이란 자신과 혈연관계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 법률상으로는 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sup>1)</sup> 친족 호칭은 바로 이러한 친족 제도에서 생겨나 친족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는 문화 언어 부호로서, 자신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 명사이다.

기초 어휘인 친족 호칭은 각 민족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체계 및 특징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종법 관념과 혈연 의식이 강한 가족제도가 사회 및 문화 구조 속에 전체적으로 관통되고 있어서 친족 간의 감정 유지와 위계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이 언어 방면에 반영되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밀한 호칭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

\* 경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러한 까닭으로 한·중 양국의 친족 호칭이 매우 복잡하고 구분도 상당히 엄격하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의 친족 호칭어는 대부분 중국의 서면어와 거의 일치하면서도 더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친족 관계 및 호칭이 최초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우리의 고유의 상황에 맞게 진일보 변화 발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족 관계는 크게 혈족과 인척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족은 자기와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 관계를 뜻하며, 인척은 자기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척 관계를 가리킨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친족 호칭 '兄'은 자신을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간 수평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방계 혈족에 해당한다.

본고는 어휘사의 관점에서 한·중 친족 호칭 '兄'의 어휘 체계에 대해 통시적으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어사에서는 언어 및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교체 원인과 교체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한국어사에서는 한자어 '兄'에 대응하는 고유어가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하였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한자어 '兄'으로 완전히 교체되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중국어 친족 호칭 '兄'이 '哥'로 교체된 원인 및 시기 고찰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향렬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손윗사람에 대한 한국어의 호칭과 지칭은 '兄'이고<sup>2)</sup>, 현대 중국어는 '哥哥'이다. 중국어사의 관점에서 '형'의 어휘 체계를 관통해 보면, '兄'에서 '哥'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쳤고, 한국어사에서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 과정을 통해 '兄'이라는 호칭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친족 호칭은 원래 어휘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 민족 문화의 특징을 매우 잘 표현해내는 기초 어휘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어에서는 왜 '兄'이라는 호칭어가 도태되었으며, '兄'을 대체하게 된 '哥'는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일까? 또한 중국어와 긴밀한 유대

2)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한국어에서 ‘兄→哥’로의 변천 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본 장에서는 먼저 중국어사의 관점에서 친족 호칭 ‘兄’이 ‘哥哥’로 교체된 원인 및 시기에 대해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 ‘兄’에 대한 고찰

《漢語大詞典》에 수록된 ‘兄’의 의미항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친형, 나중에 친척 중 같은 향렬 사이에서 자기보다 손위의 남성
- ② 같은 향렬 남자들 사이의 존칭
- ③ 고대에는 언니나 누나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쓰임

위의 세 의미항목을 현대 중국어의 의미항목과 비교해보면, 첫 번째 의미항목은 1음절어 ‘哥’나 2음절어 ‘哥哥’로 대체되었고, 세 번째 의미항목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사라졌으며, 두 번째 의미항목만 ‘某某兄’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친족 호칭 ‘兄’의 첫 번째 의미항목만 살펴보고자 한다.

‘兄’은 갑골문에 이미 출현한 글자이다. 字形은 뿔이 솟아있는 사람의 입을 돌출시킨 형태(兄)로, 本義는 ‘입을 벌려 기도하다’이지만, 갑골문 시기에 이미 친족 호칭인 ‘형’으로 가차되어 사용되었고<sup>3)</sup>, 가차되는 빈도수가 점차 높아지면서 ‘祝(祝)’자를 만들어 本義를 나타내고, 本字는 ‘형’ 또는 ‘손윗사람’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說文》의 ‘兄, 長也. 從儿從口.’라는 풀이는 本義가 아니라, 假借된 후의 뜻을 풀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문헌 속에 나타난 ‘兄’의 용례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 ① 男子先生爲兄, 後生爲弟.(《爾雅·釋親》)  
(사내아이는 먼저 태어나면 형이라 하고, 뒤에 태어나면 弟라 한다)
- ② 故敬其父則子悅, 敬其兄則弟悅.(《孝敬·廣要道章第十二》)

3)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3), 509쪽 참조.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 자식이 기뻐하고 그 형을 공경하면 아우가 기뻐한다.)

- ③ 母弟稱弟, 母兄稱兄.<sup>4)</sup>(《春秋公羊傳·隱公七年》)  
 (같은 어머니에서 난 동생은 弟라 부르고, 같은 어머니에서 난 형은 兄이라 부다.)
- ④ 元方難爲兄, 季方難爲弟.(《世說新語·德行》)  
 (원방도 형 되기가 어렵고, 계방도 아우가 되기 어렵다.)
- ⑤ 下馬步堤岸, 上船拜吾兄.(《此日足可惜贈張籍》)  
 (말에서 내려 제방 언덕을 걸어서, 배에 올라 우리 형님을 뵈었네.)
- ⑥ 年幼間父母俱亡, 又沒兄和弟.(《永樂大典戲文三種·張協狀元》)  
 (나이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또 형과 아우도 없습니다.)
- ⑦ 可巧鳳姐之兄王仁也正進京.(《紅樓夢·第四十九回》)  
 (그러나 우연히 왕희봉의 오빠 왕인도 마침 國都로 들어왔다.)

예문 ① 《爾雅·釋親》의 풀이는 ‘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⑤는 唐代 韓愈 詩의 한 구절로 ‘사촌 형’을 지칭하고, ⑥은 元曲에서 남자 배역인 生의 대사이다. ⑦의 예문으로 보건대 ‘兄’은 異性 간에도 쓸 수 있는 호칭임을 알 수 있다

상고시기에 ‘兄’은 ‘昆(昆)’이라고도 불렀다. 《爾雅·釋親》에 「昆, 兄也。」라 하였고, 《說文》에는 「주나라 사람들은 兄을 昆이라 불렀다(周人謂兄爲昆)」고 하였다. 郭璞의 注에도 「지금 강동 사람들은 (형을) 昆이라 부른다(今江東人通昆言)」라 했고, 段玉裁는 「사내아이 중 먼저 태어나면 형이라 하고, 후에 태어나면 아우라 하니, 이것이 본래의 호칭이다. 형을 昆이라 부르는 것은 주나라 사람들의 말이다(男子先生爲兄, 後生爲弟, 此本定稱. 謂兄昆者, 周人語也)」라고 주해하였다.

- ⑧ 終遠兄弟, 謂他人昆; 謂他人昆, 亦莫我聞.(《詩·王風·葛藟》)  
 (끝내 형제를 멀리하고 남을 형이라 부르네. 남을 형이라 부르는데도 내 말을 못들은 채하네.)
- ⑨ 我亡吾二昆其憂哉.(《左傳·成公五年》)  
 (내가 떠나면, 내 두 형도 우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상으로 살펴보면, 先秦 이래 친족 호칭으로 단독 사용된 ‘昆’의 용례

4) 何休 注: “母弟, 同母弟; 母兄, 同母兄.”

는 많지 않고, 대부분 ‘昆弟’와 같이 연용된 형태로 사용되었다.

⑩ 人不聞於其父母昆弟之言. (《論語·先進》)

(다른 사람이 그 부모형제의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하는구나.)

⑪ 今秦楚嫁子取婦, 爲昆弟之國. (《戰國策·齊策一》)

(지금 진나라와 초나라가 딸을 시집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하여, 형제의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昆’은 다음 절에서 살펴 볼 ‘哥’와는 달리 형의 어휘 체계에서 ‘兄’을 대신하지 못하고, 특별한 역할 없이 先秦시기 ‘兄’의 동의어로서 잠시 존재하다가 이른 시기에 도태되었다.

사실, 호칭어 ‘兄’은 의미상으로 볼 때, 漢族들의 유교적 종법 관념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다. 《釋名》과 《白虎通義》 같은 문헌의 풀이를 보면 그들이 호칭에 적용한 종법 질서가 얼마나 엄격한지 좀 더 명확하다. 《釋名》은 「크다(兄, 荒也. 荒, 大也.)」의 뜻으로 형을 풀이하였고, 《白虎通義·三綱六紀》에서는 「兄은 비슷하다, 가깝다의 뜻으로 아버지의 위치에 비견할 수 있다(兄者, 況也. 況父法也.)」라고 풀이하었는데, 이처럼 ‘大’나 ‘況父法’이라 형을 해석하였다는 것은 종법제도 안에서의 형의 위치가 동생보다 높은 위치인 것은 물론이요, 그 높기가 심지어는 아버지 다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위계 질서를 호칭어에 반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兄’은 확실히 ‘哥’와는 의미상의 차이가 뚜렷한 漢族의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兄’은 적어도 선진양한에서 위진남북조에 이르기까지는 ‘형’을 나타내는 유일한 단어로 사용되었으나, 唐 이후로는 차츰 일부 희곡의 대사 중에 나타났을 뿐, 口語에서는 점차 사라져 대부분 서면어의 형태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漢족의 종법 질서를 뚜렷하게 반영하는 친족 호칭 ‘兄’이 口語에서 도태되었고, 또 현대 중국어 ‘哥’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 2. ‘哥’에 대한 고찰

《漢語大詞典》에 수록된 ‘哥’의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歌’의 古字
- ② 형에 대한 호칭
- ③ 자기나이와 비슷한 남자에 대한 존칭 혹은 별칭
- ④ 唐代때 아버지에 대한 호칭

먼저, ‘哥’에 대한 《說文》의 풀이를 보면 「哥는 소리이다. 두 개의 可로 이루어졌다(哥, 聲也. 從二可)」라 하였고, 이에 대해 段玉裁는 「이 뜻은 쓰는 자를 보지 못했다. 지금은 兄을 哥라 부른다(此義未見用者. 今呼兄爲哥)」라 하고, 또 「《漢書》에서는 대부분 ‘哥’로써 ‘歌’의 뜻을 나타내었다(漢書多用哥爲歌)」라고 주해하였다. 즉 ‘哥’는 본래 ‘歌’의 本字로서, 本義는 ‘소리’이고, 여기에서 다시 ‘노래’의 뜻으로引申된 것이다. 아래에서 본래 의미로 사용된 예문들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① 誦其言謂之詩, 詠其聲謂之哥.(《漢書·藝文志》)  
(그 말을 외우는 것은 詩라고 하고, 그 소리를 노래하는 것을 哥라고 한다.)
- ② 前漢有虞公者, 善哥.(《宋書·樂志一》)  
(전한에 우공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노래를 잘했다.)
- ③ 選宮女有容色者以千百數, 令習而哥之.(《陳書·後主張貴妃傳》)  
(궁녀를 뽑는데 용모가 아름다운 자들이 수도 없이 많자, 연습하여 노래하라고 명하였다.)
- ④ 召公卒, 而民人思召公之政, 懷棠樹不敢伐, 哥詠之, 作甘棠之詩.(《史記·燕召公世家》)  
(소공이 죽자 백성들이 소공의 선정을 그리워하여, 팔배나무를 아끼며 베지 못하게 하고 노래하고 읊고 감당의 시를 지었다.)
- ⑤ 王母命侍女田四非, 答哥. 哥畢, 乃告帝從者姓名及…….(《漢武帝內傳》)  
(왕모가 시녀 전사비에게 명하여 답례의 노래를 올리게 하였다. 노래를 마치자, 황제에게 시종들의 이름 및……을 고하였다)

이상의 예문을 보면, 적어도 先秦兩漢시기까지의 문헌에 사용된 ‘哥’는 모두 친

족 호칭 ‘兄’과 의미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歌’의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哥’는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친족 호칭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는가?

王力은 《漢語史稿》에서 唐代부터 ‘哥’자가 口語에서 ‘兄’자를 대신하였는데 아마도 이 ‘哥’자는 외래어인 것 같다고 하였다.<sup>5)</sup>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清代에 이미 翟灝가 《通俗編·稱謂》에서 「《廣韻》에서 지금은 형을 哥로 부른다고 처음 언급하였는데, 이 호칭은 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晉書·西戎傳》에 吐谷渾과 아우가 다른 곳으로 헤어지고서 아우가 그를 추억하며 ‘阿幹의 노래’를 지었다. 阿幹은 선비족이 형을 이르는 말이다. 阿哥는 阿幹의 변이이다.(《廣韻》始云今呼兄爲哥, 則此稱自唐始也. 《晉書·西戎傳》: ‘吐谷渾與弟分異, 弟追思之, 作《阿幹之歌》. 阿幹, 鮮卑謂兄也. 阿哥, 當卽阿幹之轉.)」라고 하여, ‘哥’자의 유입 경로와 시기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데 친족 호칭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초 어휘에 속하므로 상당히 높은 안정성을 가진 어휘인데, 어쩌서 당시 이미 사용되고 있던 漢族의 친족 호칭 ‘兄’이 이민족의 언어인 鮮卑語에서 온 ‘哥’에 의해 대체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唐代에 새로운 호칭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물론 언어 접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기에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듯하다.

唐왕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조이며 중화 문화의 전성기를 구현한 왕조이다. 漢族의 정권인지 이민족의 정권인지에 대한 의론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隋왕조와 마찬가지로 순수 漢族이 아닌 胡漢 융합 정권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실, 이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高祖 李淵을 전후로 하여 적어도 3대에 걸쳐 胡族 여인과 혼인을 맺었다. 이연의 아버지 李昞은 匈奴族 獨孤氏를, 李淵과 아들 李世民은 각각 북조 鮮卑族인 竇氏와 長孫氏를 배필로 삼았으니<sup>6)</sup>, 唐왕조의 시조 자체가 혼혈 혈통인 것이다.

胡族은 중국 북방과 서북방의 변방 민족으로, 한족들은 匈奴를 胡, 鮮卑는 東胡

5)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 1989년), 497-498쪽 참조.

6) 박한제, 〈7세기 隋唐兩朝의 한반도 진출 경위에 대한 一考〉, 《동양사학연구》 1993년 제43집, 17-18쪽 참조.

라고 불렀고, 이들은 모두 알타이어를 쓰는 민족이다. 역사적으로 보건대, 한족과 호족은 끊임없는 투쟁과 융합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그로 인해 언어 및 문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唐代 口語에 친족 호칭 ‘哥’가 나타내게 된 배경을 언어와 역사 문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哥’, ‘哥哥’는 翟灝가 언급한 것처럼 鮮卑語 ‘阿幹’에서 변화된 외래어이다. 鮮卑語 ‘阿幹’은 차용어 성분으로 중국어에 유입된 후에 점점 중국어의 규율에 맞는 외래어 형태 ‘阿哥’로 변화하였고, 다시 중국어의 다른 친족 호칭어의 중첩 형식을 모방한 형태인 ‘哥哥’로 변화하였다. ‘阿幹’이 ‘阿哥’로 형태 변화함에 따라 語音 또한 ‘akan→aka(→akv)’의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런데 ‘阿幹’에서 ‘阿哥’로 변화된 형태를 두고, 이것이 ‘阿X’의 형태로 나타나는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의 구조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阿’를 친족 호칭어의 접두어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鮮卑語 고유의 ‘阿幹’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다가 ‘阿哥’로 형태 변화한 것이므로 ‘阿’는 譯音字로 보는 것이 옳다.<sup>7)</sup> ‘幹’과 ‘哥’의 중고음을 살펴보면, ‘幹’은 平聲開口一等寒韻見母, ‘哥’는 平聲開口一等歌韻見母이다. 어음상, 이 둘은 성모는 같으면서 단지 ‘哥’의 비음 韻尾 n이 탈락하였다는 차이가 있고<sup>8)</sup>, 후에 ‘哥’의 어음 형식은 자연스럽게 kv로 변화하였다.

둘째,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唐代에 ‘哥’가 ‘아버지’의 호칭으로도 쓰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李淵의 선대는 隋代부터 지금의 山西省 일대에서 거주하며 胡族과 혼인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胡族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친족 호칭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胡族들의 ‘收繼婚’<sup>9)</sup> 또는 ‘還子制度’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收繼婚’은 아버지나 형이 죽으면 아들이나 동생이 서모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던 胡族의 풍습으로, 轉房制 또는 蒸報婚이라고도 하는데<sup>11)</sup>, 아들이 서모를 처로

7) 趙文工은 ‘阿哥’의 ‘阿’가 阿爺와 같은 친족 호칭어의 접두사라고 보았다.

8) 趙文工, 〈‘哥哥’一詞的來源初探〉,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년 제1기, 8-10쪽 참조.

9) 張清常, 《爾雅·釋親》札記, 《中國語文》1998년 2기, 140쪽 참조.

10) 陳宗振, 〈試釋李唐室以“哥”稱父的原因及“哥”、“姐”等詞與阿爾泰諸語言的關係〉, 《語言研究》2001년 제2기, 113쪽 참조.



맞이하게 되면, 서모의 아들 입장에서서는 가족 관계상 형이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還子制度’는 본래 돌궐어를 쓰는 하사크족의 전통적인 양육 풍속으로, 결혼해서 낳은 첫 아이를 남자 쪽 부모에게 주는 풍습이다.<sup>12)</sup> 아이는 말을 할 줄 알게 되면서 조부모를 父母로 부르고, 생부를 형이라 부른다. 즉, 조부모에게 보내진 아이에게 있어서, 生父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이나 가족 관계상으로는 형이 되는 것이다. 이 풍습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첫아이의 생부 생모에 대한 호칭은 생부 생모가 키우는 다른 아이들의 호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봉건 사회를 통치해 오면서 중법 관념과 예의범절을 강조하던 漢族들에게 이러한 풍속은 상당히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였을 것임에 틀림없으나, 민족 융합의 과정을 통해 알타이어 계통의 다른 북방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漢族들에게도 전파되었던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풍속들로 인한 호칭의 변화를 기존의 친족 호칭 ‘兄’으로는 담아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漢族의 친족 호칭은 수직적 계급 질서를 중시하는 중법 관념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어서, 동일한 호칭으로 아버지와 형을 부르는 것은 그들의 중법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胡化된 漢族 계통인 唐왕조는 이러한 풍습이 낯설지 않았으므로 唐代에 口語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鮮卑語 ‘阿幹’을 빌려 쓰게 되었고, 이 차용어가 차츰 중국어의 규율에 맞는 형태로 변화하여 ‘哥’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아버지’와 ‘형’을 동시에 일컫게 된 것이다.<sup>13)</sup>

‘아버지’의 뜻으로 사용된 ‘哥’와 ‘阿哥’, 중첩형 ‘哥哥’ 및 ‘형’의 뜻으로 쓰인 단음절 ‘哥’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 ① 玄宗泣曰：四哥仁孝。(《舊唐書·王琚傳》)  
(현종이 울며 말하길: 부왕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셨다.)
- ② 惟三哥辨其罪人。(《玄宗諸子傳》)  
(오직 부왕께서만 그 죄인을 바로 잡는다.)

11) 張清常, 上同, 140쪽 참조.

12) 陳宗振, 上同, 113-115쪽 참조.

13) 하사크어의 형은 аака로, ‘阿哥’의 음義와 유사하다.

- ③ 姨娘娘姊妹、嫂嫂阿哥妻. (《僧寶傳》)  
(이모는 엄마의 자매이고, 형수는 형의 처이다.)
- ④ 阿哥去日曾說與我, 教保護你三人, 安心不妨. (《大宋宣和遺事》)  
(형이 지난날 일찍이 나에게 말하길, 너희 세 사람을 보호하도록 했으니, 안심해도 괜찮다.)
- ⑤ 你阿哥有些死的不明白個, 焉得不去稟官? (明《三寶太監西洋記》)  
(네 형의 죽음에 의문점들이 있는데, 어찌 관리에게 고하러 가지 않느냐?)
- ⑥ 阿計替是我哥哥, 我名查理, 當時北國皇帝傳使我二人監守你父子. (《大宋宣和遺事》)  
(阿計替는 내 형이고, 나는 查理라고 한다. 당시 북국 황제가 우리 둘에게 당신 부자를 지키라고 했다.)
- ⑦ 元名曰: “此我二哥家婢也, 何用拜爲?” (《舊唐書·列傳第十四》)  
(원명이 말하기를: 이 자는 우리 둘째 형 집의 계집종인데, 어째서 예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⑧ 再拜跪奠大哥于座前. (《祭浮梁大兄》)  
(큰 형의 영전 앞에서 재배하고 무릎 꿇고 제를 올린다.)
- ⑨ 許武道: 做哥的力田有年, 頗知生殖. (《醒世恒言》)  
(허무가 말하길: 형이 힘써 밭 갈아 풍년이 들었으니, 자못 재배할 줄 알게 되었다.)
- ⑩ 却說田氏父母雙亡, 只在哥嫂身邊, 針指度日. (《古今小說·陳御史巧勘金釵鈿》)  
(전씨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오직 오빠와 형수 옆에 있으며 바느질로 하루를 보냈다.)

예문 ①과 ②는 ‘아버지’의 뜻으로 쓰인 예로, 四哥는 현종의 아버지 睿宗, 三哥는 棣王이 아버지인 玄宗을 부르는 호칭이다. ‘아버지’의 뜻으로 쓰인 것이 唐代에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문 ③부터는 ‘형’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③~⑤는 외래어의 형태로 변한 ‘阿哥’의 용례로서, 흥미로운 것은 이 과도기 형태의 이음절 호칭어가 唐代에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明代에까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예문 ⑥은 중첩형으로 宋末元初 무렵에 처음 출현하였다. 예문 ⑧은 민간에서 처음 ‘형’의 뜻으로 사용된 예이다.

이상으로 보건대, 중국어에서 형이나 오빠를 나타내는 최초의 친족 호칭 ‘兄’은 唐代에 口語에서 ‘哥’로 교체되면서 주도적 지위를 내주고 서면어에서 주로 사용되

는 호칭으로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민족의 문화 및 풍속을 담은 호칭 ‘哥’는 唐代 이후 ‘아버지’라는 의미항목이 없어지고 ‘형’을 나타내는 호칭어 및 지칭어로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현재까지 구어 및 서면어 모두에서 한자어 ‘兄’이 주요 호칭어 및 지칭어로 사용되고 있다.

### Ⅲ. 한국어의 친족 호칭 ‘兄’

한국어에서 ‘兄’은 본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同性의 동기를 뜻하는 친족 호칭으로, 중국어의 서면어 형태를 보존하고 있는 한자어이다.

2장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중국어는 일찍이 唐代에 ‘兄’에서 ‘哥’로 호칭 교체가 일어났으나, 역사적으로 중국어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은 우리 말 호칭에는 이러한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형을 나타내는 고유한 우리 말 호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1. 고유어의 존재 여부 및 한자어로의 교체 시기 고찰

우리의 국어사에서 형을 뜻하는 고유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봐야할 것 같다.

첫째, 형과 대립 개념인 아우를 나타내는 고유의 친족 어휘 ‘아스’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형’을 뜻하는 고유어 역시 당연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둘째, 《訓蒙字會》와 같은 보수적인 訓釋을 담고 있는 대표적 한자 학습서 등에 ‘兄’ 대한 한글 풀이말이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아래에서 그 용례<sup>14)</sup>를 살펴 보자.

- ① 六親은 아비와 어미와 兄과 아스와 거집과 子息과라(《內訓》)
- ② 兄 形 : 兄, 兄 加 : 哥, 兄 곤 : 昆 (《訓蒙字會 上》)

14) 고전 국어의 모든 예문은 조항범(1996), 김병균(2001), 최승렬(1987)의 예문을 재인용함.

- ③ 아스 데 : 弟 (《訓蒙字會 上》)
- ④ 밑 백 : 伯 (《石峯千字文》)

예문 ①에서 보면 한자어 ‘兄’에 대한 대응어로 아우의 고유어인 ‘아스’가 나타나지만, 형을 뜻하는 고유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訓蒙字會》에서 ‘弟’를 ‘아스’로 풀이하고 ‘兄’을 나타내는 모든 한자를 ‘밑’으로 풀이한 것으로 보아 형을 뜻하는 고유어는 ‘밑’인 듯하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한자 학습서 《新增類合》에는 ‘昆’을 ‘兄’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한자어와 고유어 중 어느 것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고유어로 쓰인 ‘밑’의 용례를 좀 더 살펴보자.

- ⑤ 내 아드리 비록 므디라도 사오나볼씨(《月印釋譜2:5》)
- ⑥ 長은 므디오(《月印釋譜 序:14》)
- ⑦ 므디 病 되엿거늘(《三綱行實圖 烈7》)

⑤~⑦은 모두 15세기 문헌에 ‘밑’이 명사로서 사용된 용례이다.

- ⑧ 太子를 하늘히 굴히샤 兄 ㄱ쁘디 일어시닐(《龍飛御天歌1:13》)
- ⑨ 우리 어미는 형이오 더의 어미는 아스 ㄹ라 (《鰥譯老乞大》)
- ⑩ 형과 아오과 밋누의과 아오누의는 날로 더브러(《警民編諺解》)
- ⑪ 형이 우리 두 아을 부르시니 므슴 일이 잇느니잇고(《五倫全備諺解》)

예문 ⑧과 ⑨는 각각 15세기, 16세기의 후기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한자어 ‘형’의 용례이고, ⑩과 ⑪은 17, 18세기 근대 국어의 용례이다.

이상의 예문으로 보건대, 우리 국어에 형을 뜻하는 ‘밑’이라는 고유어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출현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문헌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한 진일보한 연구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다만 국어사의 관점에서 보면, 15, 16세기의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이 두 친족 어휘가 비슷한 빈도로 병용되다가 16세기말 이후 ‘밑’이 차츰 명사로서의 독자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후 한자어 ‘형’에게 주도적 위치를 내주게 된 듯하다. 그러나 고유어 ‘밑’이 완전히 도태되어 없어진 것은 아니고 19세기 이후 [밑+{친족어휘}]의 구조

로 남아, 서열을 나타내는 접두사의 기능과 의미에 충실하게 되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이 기능마저도 약화되어 ‘큰-’이나 ‘첫-’으로 대체되었다.<sup>15)</sup>

따라서 한자어 ‘兄’은 대략 후기 중세 국어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후기 중세 국어에서의 친족 호칭 ‘형’의 의미 적용 범위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사이에서도 同性間이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의 ‘兄’처럼 異性間에도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일보한 연구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

## 2. 중국어 ‘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원인 試探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어와 긴밀한 접촉 관계를 유지하던 우리 고전 국어에서 왜 중국어 口語 ‘哥’가 친족 호칭어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일까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

한국 고전 종합 DB의 검색 결과, 한문으로 전해지는 우리의 고전 문헌에 형의 뜻으로 쓰인 ‘哥’의 예들이 보이고 있으나 한글 문헌에서는 그 용례를 찾지 못하였다. 또한 ‘兄’과 비교했을 때, ‘哥’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국어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중국어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수한 쓰임이 나타나는데, 바로 金哥, 李哥처럼 姓 뒤에 붙어 그 성을 나타내거나, ‘金哥 놈’과 같이 그 성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을 낮보아 가리키는 접사로 사용된 예가 많이 보인다.

필자는 이것이 아마도 ‘哥’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유가적 종법 의식이 강하고, 그에 따른 종법 질서, 즉 서열을 매우 중시하였다. 따라서 종법 질서가 무엇보다도 잘 반영되어 있어야 하는 친족 호칭어에, 하나의 호칭으로 ‘아버지’와 ‘형’을 모두 칭하는 ‘哥’를 받아들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당초 胡族의 영향을 받은 북방 漢族들이 ‘兄’으로는 ‘阿幹’, ‘阿哥’의 함의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고, 특히 ‘아버지’를 칭할 수 없자 鮮卑語를 흡수하여 ‘哥’리는 친족 호칭어를 만들어냈으나, 이후 장기적으로 봉건 사회를 유지하면서 봉건 예교 특히

15) 조항범, 《國語 親族 語彙의 通時的 研究》(태학사, 1996), 248-267쪽 참조.

친척 촌수의 구분을 매우 중시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또 같은 호칭으로 아버지와 형을 칭하는 상황에 거부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哥’의 의미항목에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서면어 ‘兄’과 동의어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서면어 형태인 ‘兄’이 친족 호칭으로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고, ‘哥’는 특이한 변이 형태인 접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자료 부족으로 후속 연구에서 지속해나가기로 한다.

#### IV.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형’을 나타내는 호칭 ‘兄’과 ‘哥’에 대한 언어 및 문화적 측면의 의미 고찰을 통해 각각의 의미 변천 및 교체시기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어의 ‘兄’은 적어도 선진양한에서 위진남북조까지는 구어 및 서면어에서 유일무이한 호칭이었으나, 唐代에 口語에서 ‘哥’에게 주도적인 자리를 내어준 이후로, 현재까지 서면어 및 일부 단어의 형태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의미상으로 볼 때, ‘兄’은 위계질서가 매우 뚜렷한 漢族의 어휘이며 한국어 ‘兄’과의 차이점은 이성 끼리도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라는 것이다.

둘째, 唐代에 나타난 ‘哥’는 본래 鮮卑語에서 온 차용어가 중국어의 발진 규율에 맞추어 변화된 것으로, ‘收繼婚’, ‘還子制度’ 등과 같은 胡族의 특수한 문화 코드를 담고 있는 어휘이며, 胡漢 융합 정권인 唐 王室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호칭이다. 이민족의 혈통이 섞인 唐代에는 ‘아버지’와 ‘형’을 나타내는 호칭과 지칭으로 사용되다가, 후에 漢族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요소인 ‘아버지’의 의미항목이 소실되는 과정을 거쳐 현대 중국어 ‘哥’의 의미항목으로 확정되었다.

셋째, 한국어의 ‘兄’은 고유어 ‘뎡’과 한자어 ‘兄’이 구어와 서면어에 함께 공존하다가 16세기 말 이후에 고유어의 명사적 기능이 도태되면서 한자어 ‘兄’에게 주도적 위치를 넘겨주었다. 한자어 ‘兄’은 의미상으로 중국어와 비슷하나, 同性間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넷째, 중국어의 ‘兄→哥’로의 교체 과정이 한국어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호칭어로서의 ‘哥’는 한문 문헌에만 다소 출현하였을 뿐이고, 이후 姓 뒤에 붙어서 그 姓을 나타내거나 그 姓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을 알보는 접사의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에서 ‘哥’가 호칭어로 남지 못하고 특수한 쓰임으로 변화된 것은 아마도 ‘哥’ 본래의 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본고는 ‘형’의 뜻으로 사용된 한·중 친족 호칭어를 어휘사의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어 문헌에서 ‘哥’의 의미와 변천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자료 보충 및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王力 《漢語史稿》，中華書局，1989
- 조항범 《國語 親族 語彙의 通時的 研究》，태학사，1996
- 박한제 <7세기 隋唐兩朝의 한반도 진출 경위에 대한 一考>; 《동양사학연구》 제43집, 1993
- 陳宗振 <試釋李唐室以“哥”稱父的原因及“哥”、“姐”等詞與阿爾泰諸語言的關係>; 《語言研究》 2기, 2001
- 趙文工 <‘哥哥’一詞的來源初探>;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8. 1
- 趙文工 <唐代親屬稱謂‘哥’詞義考釋>;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99. 1
- 張婷 <常用詞“兄/哥”的發展與演變>; 《山東行政學院山東省經濟管理幹部學院學報》, 2008. 6
-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東北師範大學出版社，1993.
- 黃樹先 <“哥”字探源>; 《語言研究》，1999. 2
- 張清常 <<爾雅·釋親>札記>; 《中國語文》，1998. 2
- 胡雙寶 <說“哥”>; 《言語學論叢》，商務印書館，1980
- 김병균 <<華音方言字義解>에 나타난 한자차용어의 어원 연구>; 《語文論執》 제29집, 2001
- 최승렬 《韓國語의 語源》，한샘，1987

### 【中文提要】

韓中兩國都有几千年的封建宗法社會的歷史，因此語言上具有非常豐富的親屬稱謂詞。起初，韓語受到漢語的影響，但是兩國親屬稱謂語之間的差異也不少。首先，本文對漢語親屬稱謂詞“兄”、“哥”進行了語言以及歷史文化上的比較。“兄”是漢語中歷史悠久的稱謂詞，反映出漢族古俗、古制；“哥”是外來詞，而通過胡族與漢族相互融合的漫長歷史過程，從唐代起在口語里代替了“兄”字。進而從具體民族的婚姻制度、民俗文化等因素上探討了漢語接受這一外來詞的原因。

另外，本文還考察了韓語里有否表示“兄”義的固有稱謂詞，然後進行了表示此義的韓語稱謂詞為何沒受到漢語“兄→哥”的演變過程的影響。

### 【主題語】

親屬稱謂詞，兄，哥，ㄴ, 收繼婚，還子制度

투고일: 2011.7.15 / 심사일: 2011.7.20~8.5 / 게재확정일: 2011.8.10
--